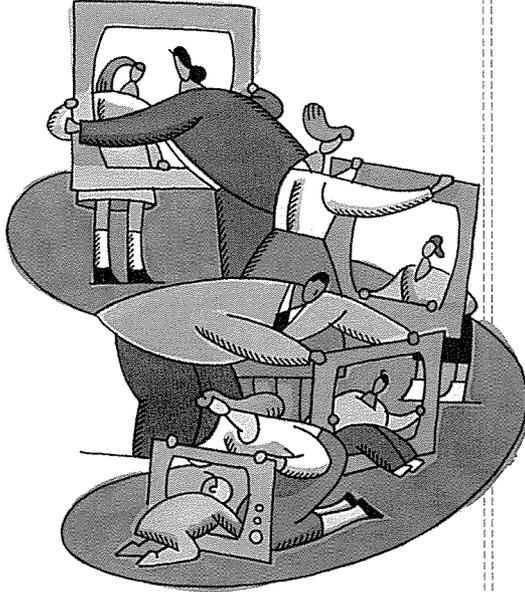


기혼 감염인의 배우자 통보 및 검사와 가족 간 노출 문제

※ 이인규 *감염인 활동가



KEY POINT

HIV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이다. 그 충격에서 어느 정도 헤어나면 곧 생활의 문제가 닥쳐온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어려움을 느끼는 초기 감염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온 가장 급하고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4차에 걸쳐 실고 있다.

- I. 경제문제 기초생활수급법 및 의료수급법
- II. 치료문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투약과 발병 전 전구중세 (독감예방접종 및 부작용, 치료제의 종류와 투약시기를 진단하는 면역수치와 바이러스 수치와의 관계)
- III. 가족문제 기혼감염인의 배우자 통보 검사와 가족 간 노출 문제 (이혼 및 임옥권, 강제 이혼청구권, 가출)
- IV. 성생활문제 감염인의 성과 출산 (전파예방, 운동, 영양섭취)

2006년 현재 에이즈에 감염된 많은 기혼 감염인들은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있다.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말조차 하기 어려울 뿐더러 배우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거나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워 며칠을 끙끙 앓다가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여 가출이나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몇 년간 보건소와 가나긴 실랑이를 하면서도 죽어도 배우자에게만은 말을 못하겠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시간이 흘러 만약 배우자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 날에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 명백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살얼음판을 걸듯이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동료들이 있다. 죄책감에 못이겨 가출을 선택한 감염인들 또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기혼 감염인들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분명하다. 필자 역시 수 년 전 보건소의 악몽 같았던 체혈실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치곤 하지만 순간의 용기가 배우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으며 사랑과 배려임을 알게 되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검사는 필수항목이었다. 그러므로 동반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보건소 담당의 추궁과 회유에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간혹 감염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강제적인 검사통보를 하는 보건소 담당자도 있어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차라리 그 강제적인 방법이 근년 들어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최근 관리지침의 완화로 배우자 검사조항이 느슨해짐에 따라 많은 기혼감염인들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반강제적인 이혼이나 재산분할 소송 등으로 법원을 들러져

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도 변화해야 마땅하겠지만 에이즈라는 질병에 용서와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

기혼 감염인들의 여러 가지 사례

소송으로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양육권의 승소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 김모씨 역시 2년 전 양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원의 노력에도 끈질기게 배우자 통보를 거부해 오던 결과 투약사실이 배우자에게 노출되어 강제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치료제 캡슐에 찍혀있는 제품번호가 인터넷에 에이즈 치료제라고 버젓이 나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그 동료는 무책임하게 말했다. 그러나 2개월 간 법정싸움을 하던 중 배우자의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계속 이렇게 법대로 하자고 하면 법정에서 모두 폭로해 버리겠다. 그러나 모든 것 포기하고 좋게 해결하자.” 이 한마디에 그 동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양육권 재산권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동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책망할 뿐이었다. 다행히 보건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배우자의 아량에 고마워할 뿐이었다. 현재 그 동료는 직장도 사직하고 지방의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무단가출로서 배우자에게 에이즈 감염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가방 하나만 싸 들고 집을 나와 버리는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집을 나오는 그때부터 직업이 없는 감염인은 한마디로 노숙인 신세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비축해놓은 비자금이라도 있으면 월세 방어

라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 준비를 못한 감염인은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전국을 돌며 보건교육에 참여하는 본인의 경우 바로 이렇게 연락 두절된 기혼자들을 찾을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 나는 되묻는다. ‘혹시 배우자 통보를 안한 사람에게는 통보하셨습니까?’ 물론 당사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배우자 통보와 검사는 모두 이미 끝난 상태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그 감염인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면 혹시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라는 대답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답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적이거나 선택적으로 배우자나 보호자에게 통보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3년 동안이나 배우자의 눈치를 살피며 살이 바짝 말라가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배우자가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면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을 하는 감염인들이 있다. 집사람이 어디가 아프다는데 혹시…

그럴 때면 본인은 더없이 냉정히 말해준다. ‘내일 당장 보건소에서 검사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에이즈 검사라는 말은 말고 또 다른 이유와 방법을 생각해서 유도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 가지로 그 감염인을 힘들게 한다. 행여 양성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지, 자녀에게 알려지면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될지, 혹시 내쫓기지는 않을지, 이혼 당하지는 않을지, 형제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감염인의 용기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차후 벌어질 엄청난 일까지 생각

할 여유는 없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지난 4월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 당사자와의 대화 및 상담 등 에이즈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배우자정보 의무위반을 범하면서까지 인간적인 배려로 차일피일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다가 결국 건강악화로 진료를 받던 배우자는 에이즈 양성판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상대에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많이 화가 난 배우자는 보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유기 및 배우자 정보의무 위반으로 형사 고발까지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보건담당은 보직변경, 당사자는 양육권, 재산권을 모두 박탈당하고 말았다. 이렇듯 인간의 기본을 무시한 행보는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로서의 감염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권에 관한 소송

아래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와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권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한다. (필요 부분 요약)

1) 재판상 이혼의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2년 이후에는 이혼사유 불허)
- 악의의 유기 :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경우, 또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경우나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극심한 학대 및 부당한 대우(신체적, 정신적, 명예)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 3년 이상 현재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원인과 이유 불문하고 이혼

판정, 향후 다시 돌아오더라도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는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구체적인 사유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져 있으나 어느 한쪽의 책임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곧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혼의 사유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장기간의 별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심한 우울증,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성적 불능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이 없을 경우.

㉢ 생명의 감염 등 신체적 요인.

㉣ 장기간의 감옥생활, 심한 종교적 신념의 차이,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무증,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 등 도덕적인 요인.

㉤ 낭비, 사치, 도박, 금전에 대한 지나친 인색 등.

이러한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혼 청구 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위의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양육권

-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할 권리만을 의미하며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할 경우 부모 어느 쪽이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 할 것인지와 양육비의 지급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 평균 양육비는 자녀 1명당 20~30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
- 또한 자녀가 여아이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혼소송

배우자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함께 건강을 챙겨 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최근에 감염인들 사이에서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회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당시 자녀를 양육 중에 있었다면 상당부분 양육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의사를 확인한다.

3) 위자료

■ 위자료는 잘못을 따져 잘못된 쪽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위로금이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례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혼인기간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4) 재산 분할

■ 재산 생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함을 기본으로 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전체 재산의 30%정도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 전 상속 재산이나 개인소유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의 사유가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배우자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고 함께 건강을 챙겨 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최근에 감염인들 사이에서는 이혼율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회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감염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현재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대상자 180명 중 98%가 독신이다. 그 중 이혼한 감염인 남성이 35명이며 기회감염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2명, 현존 부부 감염인이 6가정, 그 외 별거 12가정, 가출하여 배우자와 연락두절한 감염인 남성은 16명이며, 나머지는 독신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감염인은 10% 정도이며 이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정서적인 지지와 건강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혼인 독신감염인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혼이나 별거 및 가출로 인한 독거 감염인들의 경제, 심리적인 상태는 더욱 심각하여 가족 간의 불화 및 갈등, 외로움이 한층 더 극심하다. 그들은 재사회화 기회마저 거부하는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을 입증해 주고 있다.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질병으로 인한 소외감과 가족 간의 단절로 혼자되었다는 박탈감을 최소화 하고, 재사회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은 앞으로 재가감염인 및 기혼 감염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또한 감염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전달과 정서지지가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 요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희망을 잃은 많은 감염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설계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